

한경 BUSINESS



'5·10 부동산 대책' 약발 안 먹히는 이유
변동성 커진 증시서 살아남는 노하우
IT 기업들의 30년 흥망성쇠가 남긴 교훈

벤처 생태계 '빅뱅'

도시락의 새로운 발견

일본에서 배우는 중년 위기 대처법
글로벌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투자처는
'마지막 기회'의 땅'으로 급부상한 미얀마



값 4,000원





6중고에 시달려 온 일본 기업

첨단산업 중심으로 한국 진출 증가

강성 법무법인 지평지성 대표변호사, 일본팀장

최근 일본에서는 기업 경영 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에 높은 법인세와 엔화 강세 등 이른바 '5중고(五重苦)'와 함께 동일본 대지진 이후 전력 공급 부족까지 가중돼 '6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내수 시장의 위축과 취약해진 공급망 등까지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제조업의 해외 현지 생산 비중은 2000년 15.9%에서 2010년 25.1%로 크게 늘었고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이 발표한 2011년도 '제조업 해외 직접투자 조사'에 따르면 해외에 생산 거점을 둔 제조업 603개사 중 해외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답한 기업은 87.2%로 전년 대비 4.4% 많았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으로 공장과 개발 거점을 이전하는 일본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2011년 1분기에 일본 기업이 한국에 투자한 금액은 4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나 웃돌았다. 앞으로도 투자 금액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최근 한국으로 생산 거점을 이전한 사례를 보면, 도레이는 탄소섬유 공장을 경북 구미로 이전, 2013년부터 가동에 들어간다. 향후 증산을 위해 도쿄 돔 약 8개에 맞먹는 토지를 추가 취득하고 앞으로 10년간 구미 공장에 980조 엔(1조30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한국에서 도레이가 탄소섬유 생산을 결심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 탄소섬유는 미국의 보잉 787과 프랑스의 에어버스 A380 등 최신형 항공기의 구조재로 대량 사용된다. 그런데 도레

| 한국과 일본의 입지 조건 (일본 법인 실효세율 올 4월부터 38.01%) | | | | | |
|--|---------|---------|--------|---------|-----------------------|
| | 법인 실효세율 | 산업용전력요금 | 최저임금 | FTA화 비율 | CO ₂ 배출 규제 |
| 일본 | 40.69% | 15.8센트 | 1386달러 | 16.5% | 선진국 취급 |
| 한국 | 24.20% | 5.8센트 | 585달러 | 36.0% | 개발도상국 취급 |

자료 : 한국은행 2011년, '최근 일본의 산업 공동화 우려 증대 배경과 전망'

• 산업용 전력 요금(달러 환산, 1kwh, 2009년, IEA 비교) • 최저임금(달러 환산, 월액, JETRO 조사)
• FTA 비율은 무역 총액에서 차지하는 발효 원료, 서명 원료 체결국 비율

이가 보잉과 에어버스사에 탄소섬유를 수출할 때 일본에서 수출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수출하는 편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한국은 일본보다 앞서 유럽연합(EU) 및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의 FTA화 비율은 일본의 2배 이상이다. 이 같은 관세장벽의 한일 간 차이도 일본 기업의 한국 진출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 기업은 반도체와 액정 패널, 스마트폰, 태양광발전 장치, 발광다이오드(LED), 유기EL 등 최첨단 전자 분야에서 일본 기업을 몰아내기 시작했다. 그렇게 되면 해당 제품과 관련된 일본의 전자 부품 제조업체도 현지 생산의 이점을 살리기 위해 한국 진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최근 일본 시장에 재진출한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다. 세계 2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과 미국에서 점유율을 점점 높이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위상을 고려할 때 일본의 자동차 부품 업체는 태국 진출에 이어 한국 진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일본 정부는 최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가와 2013년부터 교토의정서를 사실상 탈퇴하기로 결정했고 법인세를 2015년부터 5% 낮출 예정으로 국내 산업 공동화를 막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기업의 해외 이전을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볼 때 한국 산업계는 일본과 유사한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자동차·전기전자·기계 등의 분야에서 글로벌 일본 기업의 부품 아웃소싱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한국의 중소 부품 소재 기업과 일본 대기업 간의 동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해외 현지 생산 증가 배경 (1~6번까지 이른바 6중고)

- 1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전력 공급 차질과 취약한 공급망
- 2 엔화 강세 지속
- 3 높은 법인세
- 4 FTA 체결 부진
- 5 노동자 파견법 개정안
- 6 온실가스 배출 감축 강화
- 7 신흥국 시장 수요 확대로 현지의 저렴한 생산비와 소비시장 근접성을 이유로 진출 확대
- 8 가계 소득 정체와 소비성향 저하, 저출산 및 고령화 등에 따른 내수 부진

자료 : 한국은행 2011년, '최근 일본의 산업 공동화 우려 증대 배경과 전망'